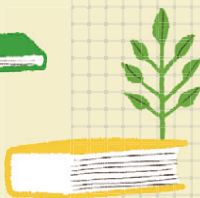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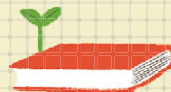
인권아, 놀자!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2018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2018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세계인권선언 70 주년 기념

2018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아, 놀자!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인권도서를 통해 다양한 인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매년 전국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순회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 12개 도서관과 인권사무소에서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와 함께
도서관별로 다양한 인권관련 독서 및 체험활동을 개최합니다.





🌿 **도서전시 어린이 인권도서 180종**

🌿 **부대행사 그림책으로 만나는 인권이야기** (주관:인권도서관)

다양한 인권관련 도서 및 체험활동 (주관:전시 도서관)

🌿 **개최 일정**

개최 장소	개최 일정	연락처
익산시립영등도서관 (광주인권사무소 공동 진행)	6.19.~6.30.	063-859-4663(익산시립영등도서관) 010-9665-9712(광주 인권테마역사)
아산시중앙도서관 (대전인권사무소 공동 진행)	6.19.~7.8.	041-530-6619(아산시중앙도서관) 042-719-1331(대전인권체험관)
대구광역시수성구립용학도서관 (대구인권사무소 공동 진행)	7.6.~7.26.	053-668-1705(수성구립용학도서관) 053-255-7010(대구인권체험관)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인권전시관 부산시청 제1전시실	7.16.~7.20. 7.23.~7.27.	051-868-9717(부산인권전시관) 051-710-9719(부산인권사무소)
천안성환도서관	8.2.~8.26.	041-581-9962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8.2.~8.26.	064-762-4307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9.1.~9.22.	054-270-4580
전라남도립도서관	9.1.~9.22.	061-288-5241
동작어린이도서관	10.4.~10.28.	02-823-6750
부안군립도서관	10.4.~10.28.	063-580-3947
춘천시립도서관	11.1.~11.25.	033-245-5063
충청북도중앙도서관	11.1.~11.25.	043-267-4593
강원인권사무소 강원인권체험관	11.30.~12.14.	033-813-9933(강원인권사무소)
통영시립도서관	12.1.~12.20.	055-650-2630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각 도서관과 인권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다양한 주제의 어린이 인권도서 180종을
유아편,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편으로 나누어
도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용을 돕기 위한 도서명과 주제별 찾아보기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목록 작성 방법

- 도서명
- 지은이 | 펴낸곳 | 펴낸날 | 쪽수 | 주제
- 내용

■ 목록 순서



초등학교 저학년 13



초등학교 고학년 49



찾아보기 83

2018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유아





나무를 만져보세요

책은 보통 눈으로 보고 느끼지요. 하지만 이 그림책은 눈과 손으로 함께 보는 그림책입니다. 촉각 그림책이지요. 나무를 만져보고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이 그림책은 시각장애인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점자 글씨를 함께 담았습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입체감 있게 표현해서 점자 글과 그림을 손의 촉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그림책 작가는 시각장애인 아이들과 미술놀이를 하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뛰어 넘은 촉각 그림책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림책입니다. 나무 한 그루와 꽃, 과일, 사람을 함께 아우르면서 자연을 느끼는 감성까지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촉각과 시각적으로 함께 만나 차별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키우는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나보세요. 달라진 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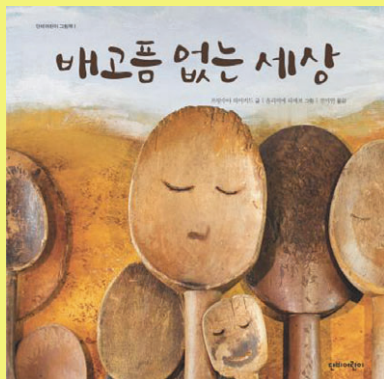
송혜승 글 · 그림 | 창비 | 2008년 | 24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배고픔 없는 세상

인간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감성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그림책의 열아홉 편의 짧은 글과 재치 있는 그림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이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밥을 기다리며 우는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냄비에 돌을 넣어 달구고 또 달구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가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다 가뭄이 해소되었는데 이제 이곳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또 굶주림에 울어야 해요. 이런 곳곳의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지요. 우리들의 관심과 그들과의 교류를 통한 희망이 이러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희망입니다.



프랑수아 데이비드 글 · 올리비에 티에보 그림 |
전미연 옮김 | 단비어린이 | 2012년 | 52쪽 |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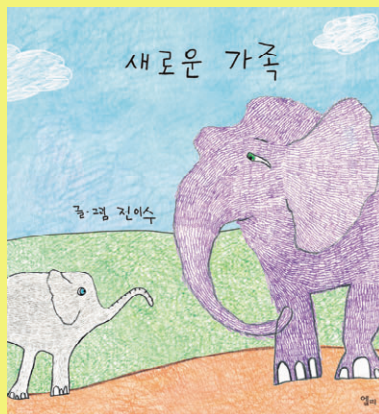


새로운 가족

이 그림책의 작가는 어린이예요. 전이수 작가는 <꼬마악어 타코>, <걸어가는 늑대들>이라는 책도 내기도 했지요.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지요. 작가도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작가는 코끼리를 타는 대신 엘리펀트 헤이븐(Elephant Haven)이라는 곳에서 코끼리에게 밥도 주고 함께 놀기도 했대요.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코끼리를 타는 것이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과 관계 맺기예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코끼리 가족은 어느 날 장애를 가진 아기 코끼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인공인 어린 코끼리는 동생이 된 아기 코끼리가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다리가 불편해서 있어서 걷는 게 느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짓궂게 장난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그 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코끼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모든 코끼리는 저마다 다르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간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되지요.



전이수 글·그림 | 엘리 | 2017년 | 56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초코곰과 젤리곰

서로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나요? 많은 쪽과 힘이 센 쪽이 늘 옳은 건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편견에 묻혀 있어요. 이 그림책은 달콤한 초코곰과 젤리곰을 통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과자처럼 달콤해진다!' 는 것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세계 인권운동의 발단이 된 '로자 파크스' 사건을 달콤한 과자로 표현했다고 해요. 버스 앞쪽 백인 좌석에 앉아 끝까지 흑인 좌석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은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 나란히 앉을 수 없는 초코곰과 젤리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달콤한 과자 그림에는 웃음과 깊은 슬픔이 함께 하고 있어요. 왜 초코곰과 젤리곰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잘못된 선입견과 어딘가에 소속되어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이런 사회를 만들지요. 하지만 이 그림책 속 초코곰과 젤리곰은 많은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 주는 '가장 맛있는 나라' 로 굳세게 걸어갑니다.

초코곰, 젤리곰 브라보!



얀 케비 글·그림 | 박정연 옮김 | 한솔수북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깜장 병아리

이기규 글 · 고은채 그림 | 여우고개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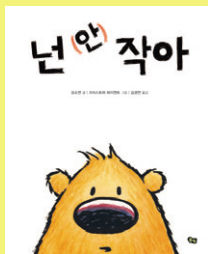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를 아나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는 않나요? 이 그림책은 병아리들의 세상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슬며시 알아가게 합니다. 어른들은 어릴 때의 추억을 먹고 살지요. 그만큼 유아기 때의 인성교육은 중요합니다. 유아기 때부터 생각의 영역을 다양하게 알아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는도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날개 잃은 천사

마야 글 · 그림 | 임지영 옮김 | 고래이야기 | 200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동생이 장애가 있다면....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쉬쉬하지 않을까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도 그랬지요.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과 동생을 잘 보살펴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모두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 나라 천사였단다. 그런데 세상에 내려오면서 날개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날 수 없단다.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해."라는 엄마의 말이 감동을 줍니다. 이 그림책은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더 진실 되고 감동적입니다.



넌(안) 작아

강소연 글 · 크리스토퍼 와이엔트 그림 | 김경연 옮김 | 풀빛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잘한다'와 '못한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균보다 좀 낮으면 놀림 당하고 높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생각을 키우는 그림책을 만나보세요. 이 그림책은 재미있는 털복숭이들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알아갑니다. 작가가 어릴 적 겪었던 일상에서 느꼈던 놀라웠던 감성들을 재미있는 그림과 글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글 · 그림 | 김현주 옮김 | 한림출판사 | 2011년 | 32쪽 | 평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대포를 무지무지 쏘아보고 싶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 임금님은 여우에게 대포를 쏘게 되고 대포수가 늘어나고.... 하지만 이 그림책의 모두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화려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평화로운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림책의 끝부분에서 대포를 묵묵탕으로 사용하지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룰루

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글 · 그림 | 최윤정 옮김 | 웅진주니어 | 1997년 | 2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늑대와 토끼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지만 서로는 친구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놀이도 함께 하면서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위기가 닥치지만 서로의 믿음으로 다시 잘 극복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이 그림책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민수야 힘내!

아오키 미치요 글 · 하마다 케이코 그림 | 이영준 옮김 | 한림출판사 | 2000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 책 속의 민수는 누워서만 지내요. 친구들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때 선생님이 민수를 업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민수야 힘내!” 라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와 좀 다른 친구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친구라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해야 해요.



서로를 보다

윤여림 글 · 이유정 그림 | 낮은산 | 2012년 | 52쪽 | 동물권리

동물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이 그림책은 동물원 우리를 사이에 두고 동물과 인간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는 대화를 통해 동물들과 인간이 과연 '자기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치타, 쇠황학, 긴팔원숭이, 돌고래 등이 자연 속에 있는 모습과 동물원 안에 있는 모습이 보여 지면서 동물과 인간의 참된 권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 나 다운가?'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 와다 마코토 그림 | 장지현 옮김 | 보림 | 2006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안 들린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다니. 들린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볼 수 없는 건가 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그림책입니다. 장애는 그저 괴롭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며, 보지 못할 때, 들리지 않을 때 열리는 더 풍요로운 감각의 세상이 있고, 누구나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남과는 다른 능력이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캐롤린 캐슬, 데스몬드 투투 글 · 존 버닝햄 외 그림 | 이명희 옮김 | 마루벌 | 2011년 | 48쪽 | 인권의 이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크게 말하거나, 작게 말하거나, 소리치거나, 속삭이거나,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몸짓, 손짓으로 나타내거나, 언제나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책은 어린이에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존재의 가치를 다양한 그림을 통해 알려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 42조 중 15항을 골라 14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해

나카야마 치나쓰 글 · 야마시타 유조 그림 | 고향옥 옮김 | 고래이야기 |
2009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밥과 요리는 여자인 엄마가 해야 할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이 그림책 속 물고기 세계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물고기들은 인간 세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평등한 남녀 관계를 보여 주지요.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재미있게 그려 놓았습니다.

〈개정판〉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고래이야기, 2018)

2018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초등학교 저학년





6번 길을 지켜라 똑딱

도깨비를 본 적이 있나요? 아, 옛날이야기에나 나오는 거라구요? 이 책속 도깨비는 그렇지 않아요. 동네 땅 속에서 오래 오래 살던 도깨비가 나왔어요. 왜냐구요? 자기들이 잘 살던 곳을 누가 자꾸 두드리고 땅을 파고 시끄럽게 해서 나왔지요.

이 책은 지금의 마을에 나타난 꼬마 도깨비 형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자신들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서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인형 사진 그림책입니다. 실제 경험을 묘사하여 인형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풍부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줍니다.

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재개발을 방해할 방법을 찾기도 하면서 마을을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눈물겹도록 신도 나고 대견스럽습니다. 인형을 사실감 있게 만들고 사진으로 표현하여 마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개발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파괴되는 자연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김중미 글 · 도드리 그리고 만들 · 유동훈 사진 |
낮은산 | 2014년 | 60쪽 | 함께 사는 세상



나 좋은 점 가득

아이들이 쓴 글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기 마련이지요. 자신의 마음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글을 쓴 아이들도 그렇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살게 된 이주 배경 가정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서툰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글 속에는 삼각김밥, 파리, 냉장고, 엄마부터 따돌림, 국적, 정체성까지 다양한 소재가 들어 있습니다. 글은 짧고 경쾌하지만 그 안에는 이주배경 가정 아이가 갖는 복잡한 정서가 담겨 있지요. 그렇다고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꼈던 경험을 떠올리며 친구를 응원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페이지 한 쪽에 달린 요시모토 유키오 선생님 설명과 함께 아이들의 글을 읽다보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요시모토 유키오 글 · 마루야마 사토시 그림 |
김영주 옮김 | 꿈터 | 2016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는 비밀은 더 이상 감추지 않아도 돼!’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라서 당해야 하는 일이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예방과 대처의 방법을 ‘새’를 등장시켜 비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 속의 작은 새는 계속되는 큰 새의 폭력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만 강압적 폭력은 피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작은 새는 부모의 말에 힘을 얻어 사실을 말하게 되고 큰 새는 벌을 받게 됩니다. 커다란 비밀을 갖게 된 어린 새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절히 대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아동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아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힘은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 아빠가 널 지켜 줄 거야.” 이런 믿음은 말 뿐 아니라 평소에 어른들이 행동으로도 표현했을 때 가능합니다.



아너미 베르브룩스 글 · 그림 | 지명숙 옮김 |
프인돌어린이 | 2012년 | 44쪽 | 아동성폭력



내 마음이 들리나요

일상에서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겠지요. 이 책에는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없는 우리 학교’ 같은 표어나 표지판에 있는 게 다예요. 글자는 그냥 표시일 뿐이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지 않지요. 이처럼 글자가 없으니 그림에 더 집중하게 돼요.

이 책은 주인공 아이가 학교로 가는 길부터 시작합니다. 등굣길의 아이는 다른 아이들 뒤를 따라 가거나 혼자 걷거나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외따로 놀입니다. 그런 아이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죠. 하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입니다. 어떤 독자는 그림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글자 없는 그림책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재미는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상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새들은 음표가 되고 보도블록과 횡단보도는 피아노 건반이 되고, 가스배관과 전깃줄은 오선지가 됩니다. 음악을 만난 아이는 생기를 찾고, 그림책을 보는 우리는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올 것만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조아라 그림 | 한솔수북 | 2017년 | 56쪽 |
자신의 소중한



론도의 노래

평화와 전쟁은 누가 만들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일부 어른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꽃이 노래하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라는 재앙이 다가왔지요.

론도라는 곳은 아름다운 꽃과 사랑이 샘솟는 곳이었지요. 어느 날 전쟁이 다가와서 꽃도 노래도 사라졌어요. 론도의 세 아이는 이 마을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과 맞서 싸우지만 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었지요. 전쟁을 이기는 것은 사랑의 빛과 노래였어요.

이 그림책은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렬한 상징들을 이용하여 전쟁과 평화의 이미지를 대비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과 사랑이 가득할 때만이 폭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샘솟지요.



로마나 로마니신, 안드레이 레시프 글 · 그림 | 최혜기 옮김 | 산하 | 2015년 | 36쪽 | 평화



바람을 가르다

이 책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다〉는 정채봉 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 말고, 무조건 도와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이야기 말고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서로가 서로에게 스미고 물들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작가 말처럼 이 책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와 관계 맺으며 함께 성장해 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린 〈바람을 가르다〉에서는 뇌병변 장애 때문에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찬우와, 찬우에게 달릴 때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용재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천둥 번개는 그쳐요?〉에서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오빠를 둔 해미의 고민과 힘듦이, 〈해가 서쪽에서 뜬 날〉에서는 자폐성향이 있어서 낯선 환경을 힘들어 하는 유빈이와 유빈이와 친해지기 위해 변신을 꾀하는 담임선생님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히 〈해가 서쪽에서 뜬 날〉에 나오는 유빈이 반 친구들이 인상적인데요, 친구들은 유빈이를 장애를 가진 특별한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유빈이의 이름을 이해하고 유빈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줍니다.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스미고 물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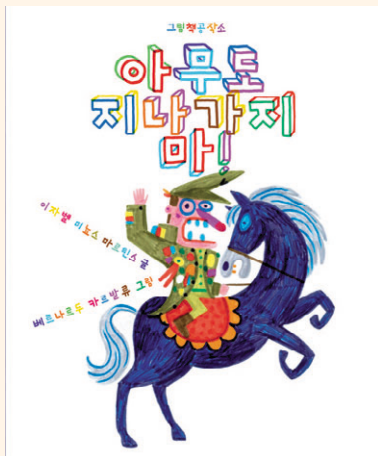
김혜은 글 · 신승기 그림 | 샘터사 | 2017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아무도 지나가지마!

군인 한 명이 책 가운데 서서 오른쪽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묻지만 군인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장군님을 위해서 오른쪽을 비워 두어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노인, 임산부, 소녀, 공사장 인부, 춤추는 댄서, 운동선수 등 62명의 등장인물로 왼쪽은 미어터질 지경이 되지요.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는 하얗게 비워져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 불리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우연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를 만드는 건 아이들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아이들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부당함을 알지만 커다란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참기만 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법이지요.



이자벨 미노스 마르틴스 글 ·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그림 |
민찬기 옮김 | 그림책공작소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진짜 투명인간

가끔 우리는 학교 숙제도 하기 싫고, 엄마가 연습하라는 피아노도 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가 투명인간처럼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나는 칭찬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나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다 우연히 눈이 보이지 않는 피아노 조율하는 아저씨를 만나지요. 투명인간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짝을 이룹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아저씨에게는 모두가 투명인간인 거나 마찬가지죠. 주인공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저씨에게 색감을 알려주고 아저씨는 색감을 피아노 소리로 들려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둘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맨발로 잔디를 밟아 가면서 연초록색을 알려주고, 빨간 토마토로 빨간색을 알려주기도 해요. 아름다운 시적 표현과 마음의 소리로 아이와 시각장애인 아저씨의 색다른 교감을 함께 느껴보세요.



레미 쿠르종 글 · 그림 | 이정주 옮김 | 씨드북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파란 아이 이안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조차도요.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카락, 얼굴, 키, 걸음걸이, 목소리 등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또 동시에 모르기도 해요. 무슨 말이나고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생김새가 표 나게 다른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잖아요. ‘파란 아이’ 이안도 그래서 피곤해요.

주인공인 이안은 파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이안의 얼굴이 파란 것 때문에 걱정을 했고, 이안도 자신만 파랑다는 사실에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게 돼요. 어느 날 이안은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자신의 얼굴에 있는 파란색을 지우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파란색이 사라진 것일 수도 있고, 이안이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안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다는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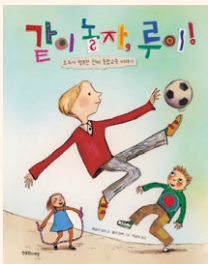
이소영 글·그림 | 시공주니어 | 2017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강민경 글 · 서현 그림 | 현암사 | 2012년 | 98쪽 | 관계의 소중함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이나 좋은 성적 등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는 마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들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관계의 중요성을 그린 동화책입니다.



같이 놀자, 루이! -모두가 행복한 진짜 통합교육 이야기

레슬리 일리 글 · 폴리 던바 그림 | 이승숙 옮김 | 한울림스페셜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랑 좀 다른 아이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입니다. 루이라는 아이는 우리와는 좀 다르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도 루이에게는 허용이 되는 예외인 법칙들도 있어요. 책 속 주인공은 말하지요, '어떨 땐 좀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반엔 조금 다른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이를 위해서요' 루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 속의 아이들은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느껴 갑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글 · 그림 | 시공주니어 | 2011년 | 36쪽 | 평화

‘안녕, 내 이름은’ 반갑게 인사하는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책장을 넘기면, 각국의 굽주림과 전쟁, 노동으로 힘겨운 아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책을 통해 우리가 다른 모습을 지니고 다른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 지구촌이라는 작은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합니다. 평화는 함께 나눔에서 오지 않을까요?



고래가 그물에 걸렸어요

로버트 버레이 글 · 웬델 마이너 그림 | 이정모 옮김 | 불광출판사 | 2015년 | 36쪽 | 환경

푸른 바다에서 사는 고래 한 마리. 머나먼 바다를 누비며 먹이를 잡아먹고 헤엄을 치는 고래 모습이 매우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고래는 고기잡이배가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혹등고래를 구조하는 과정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타마라 베레트-제하비, 로니 로젠틀 글 · 실비아 카비브 그림 | 김루시아 옮김 | 초록개구리 | 2011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내가 태어난 땅에선 살 수가 없어 다른 나라로 가야하는 아픔을 아나요?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이런 곳이 많아요. 이 그림책은 내전을 피해 난민촌으로 가는 쌍둥이 물루와 차가이 이야기입니다. 난민이 되어 자기 나라를 떠나 온 네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고 그렸어요. 그림도 아이들이 살던 나라의 토속적이고 독특한 문양 등을 아이들이 그리고, 화가가 재구성하여 애잔함을 더하고 있어요.



굴러라 슈퍼바퀴

고정옥 글 · 손지희 그림 | 뜨인돌어린이 | 2015년 | 7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장애가 심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놀랍도록 똑똑한 휠체어가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장애로 몸이 뒤틀리고 발음도 똑똑치 못한 주인공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속마음도 읽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는 재주 많은 휠체어, 힐링이! 사실은 이런 휠체어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장애인들을 위한 온전한 세상이겠지요.



그날 밤 이후 이영준

이영준, 김소희 글 · 손지희 그림 | 낮은산 | 2016년 | 76쪽 | 차별 · 편견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책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담겼는데 입양아와 그 가족이 주인공이지요.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입양이 되었지만 부모의 정성스런 돌봄을 받으며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족이란 핏줄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맺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어 보아요.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글 · 그림 | 윤구병 옮김 | 비룡소 | 2002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땅꼬마라고 불리는 소년이 있었지요. 소년은 혼자 숨어서 조용히 지냈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땅꼬마의 존재를 무시했지요. 땅꼬마는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학교생활을 보냈고, 소년의 내면적 보석을 한 선생님의 관심으로 찾았지요. 학예회 발표 때 낸 소년의 까마귀 소리로 그동안의 가슴 속 아픔과 슬픔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은 소년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뒤로 땅꼬마 소년은 '까마귀 소년' 이라 불렸다고 하지요.



까만 아기 양

엘리자베스 쇼 글 · 그림 | 유동환 옮김 | 푸른그림책 | 2013년 | 56쪽 | 자신의 소중함

모두 흰색인데 나만 까만색이라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의 아기 양들은 모두 흰색인데 혼자 까만 아기 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해요. 하지만 까만 아기 양은 다름에서 오는 특색을 찾아가요. 양치기 할아버지도 까만 아기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요. "아니야, 넌 내게 아주 소중한 하단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달라요. 그 다름에서 나만의 소중한 장점을 찾으면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상드라 푸아로 셰리프 글 · 그림 | 문지영 옮김 | 한겨레아아들 | 2015년 | 32쪽 | 세대 간의 이해

할머니의 잃어버린 물건과 기억들을 도둑 까치가 물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리즈 할머니. 치매로 점차 기억을 잃어 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자를 사서 두고 온 것에 당황스러워 하는 할머니를 다독이며 어두운 밤길,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합니다. 할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지지만, 할아버지가 만든 멋진 드레스에 담긴 기억들은 영원하겠지요.



강이의 꽃밭

김효진 글 · 최정인 그림 | 파란자전거 | 2014년 | 11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장애인이 직접 쓴 동화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기쁨, 슬픔, 즐거움 등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고 늘 함께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하는 명쾌한 동화책이에요. 혹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지는 않을까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세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봅니다.



나도 학교에 간다

카리 린 윈터스 글 · 스티븐 테일러 그림 | 이미영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0쪽 | 교육받을 권리

오늘 학교 가기 싫었나요? 지구 저 반대편 어느 곳에서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에이즈에 걸려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동생을 돌보렴. 학교는 그 다음에 가도 돼.” 온종일 집안일을 하는 나팔리에게 그런 시간은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나와 우리

이선미 글 · 그림 | 글로연 | 2013년 | 46쪽 | 관계의 소중함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어색하여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던 적 없나요? 따돌림, 편 가르기 같은 친구 관계로 상처 받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넓은 눈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림책입니다. 한 면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다른 한 면은 '우리'라는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그림책으로 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그림책 가운데 지점에서 서로 만나 상쾌하게 알아갑니다.



내 동생 필립

박현숙 글 · 이주희 그림 | 한림출판사 | 2016년 | 112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초등학교 4학년인 민준이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빠도 새엄마도 동생도 동생 담임선생님도 모두 민준이만 찾습니다. 동생 필립 때문입니다. 민준이와 필립은 아빠, 엄마 결혼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만남. 실제 거리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도 멀고, 그래서 마음의 골도 깊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이겨내며 민준이와 필립은 진짜 형제가 되어갑니다.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케이트 밀너 글 · 그림 | 마술연필 율김 | 보물창고 | 2018년 | 32쪽 | 평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아이도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싸서 친척들과 동네와 이별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언제 도착할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요. 길을 떠나 만난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아이는 새롭게 만나는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요.



너는 어디로 가니

맥신 트로티어 글 · 이자벨 아르스노 그림 | 노경실 옮김 | 산하 | 2012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일정한 시기마다 집을 옮겨야한다면 어떨까요? 이 그림책 속 안나는 가족이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큰 이동을 하게 되지요. 안나는 자신의 가족이 계절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같고, 산토끼, 일벌, 고양이 같아요. 나무처럼 한 곳에서 오래 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안나의 바람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기시카와 에스코 글 · 오카모토 준 그림 | 고향옥 옮김 | 한울림스페셜 | 2016년 | 11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내 부모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책 속 주인공인 사춘기 소녀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소소한 사건들을 재치 있게 풀어가는 동화입니다. 누구나 성장하는 시기에는 아픔이 있지요. 얼마나 현명하게 그 장애물을 잘 풀어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 열쇠를 이 책에서 찾아보세요.



노각 씨네 옥상 꿀벌

이혜란 글 · 그림 | 창비 | 2016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상상해 보세요. 만약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를요. '꿀벌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먹거리가 줄어들어 결국 사람들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되겠지요. 이 책은 꿀벌의 중요성을 깨닫고 꿀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노각 씨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마르코 베레토이 카라라 글 · 치아라 카렐리 그림 | 주효숙 옮김 | 한울림 스페셜 | 2017년 | 2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우리 누나는요, 번덕스럽고 시끄럽고 화를 내고 세상 무엇보다 조용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나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나가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ですよ. 그리고 그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ですよ.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없듯이 사람도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누나도 단지 다를 뿐인 것이지요.



달려!

다비드 칼리 글 · 마우리치오 A.C. 콰렐로 그림 | 나선희 옮김 | 책빛 | 2017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주인공인 '나'는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게다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곤 했지요. '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싸우곤 했어요. 그런 '나'를 싸움이 아닌 운동의 세계로 이끌어준 이가 나타나는데 새로 부임한 쌤맨 교장 선생님이예요.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운동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다고며 달리게 해요. 달리고 달리던 '나'는 여러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쌤맨 선생님처럼 교장이 된답니다.



도둑맞은 이름

호세 안토니오 타시에스 글 · 그림 | 성초림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3년 | 36쪽 | 관계의 소중함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책은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빨간 사과’와 ‘초록색 배’ 그리고 ‘진짜 열굴’이라는 재미있는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결말을 통해 학교 폭력을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학교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돼지꿈

김성미 글·그림 | 북극곰 | 2017년 | 44쪽 | 자신의 소중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곧잘 이런 말을 하죠. 먹고 살 고민 없이 공부만 하니 얼마나 좋냐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간 순간부터 삶의 고뇌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닐 이유를 알 수 없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거기다 학교 끝나면 학원도 가야하고 말이죠. 그러느라 도무지 놀 틈은 생기지 않고, 이 책은 학교도 학원도 가지 않고 돼지처럼 맘대로 놀고만 싶은 초등학교생의 심리가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생들이 본다면 '맞아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것입니다.



뒷집 준범이

이혜란 글·그림 | 보림 | 2011년 | 38쪽 | 함께 사는 세상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혹시 내가 너무 경계하는 편은 아닌가요? 내 또래의 아이들은 아무 사심 없이 내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함께 놀아야 신나고 즐겁거든요. 이 그림책은 새로 이사 와서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뒷집 아이에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마음을 열어주면서, 서로 마음의 벽이 없이 다 같이 놀아야 진짜로 재미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

김재홍 글·그림 | 스폰북 | 2013년 | 40쪽 | 동물권리

'더 빨리! 더 편하게!'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도 어느 산 자락이 깎여나가고 있겠지요. 그러는 사이 동물들은 집을 잃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거나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책은 동물의 시선으로 길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동물과 사람이 다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롤라와 나

키아라 발렌티나 세그레 글 · 파올로 도메니코니 그림 | 길상호 옮김 | 씨드북 | 2015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눈을 잃고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납니다. 이 그림책은 사고로 앞을 못 보는 나약하고 심각한 소녀와 스텔라라는 안내견과의 우정과 서로의 관심 속에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침울한 소녀가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찾게 되지요. 이러한 극복은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해서겠지요.



마지막 뉴스

서정홍 글 · 선현경 그림 | 웃는돌고래 | 2016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농부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세상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 되지'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 책은 농사짓는 시인 서정홍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건데요, 농부들 파업으로 도시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아요.



먹지 마! 곤충젤리

강벼리 글 · 한상언 그림 | 한림출판사 | 2012년 | 223쪽 | 자신의 소중한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아무렇게나 생활하지는 않나요? 이 책 속의 정구라는 아이는 똥통해서 놀림 받고, 절제하지 않는 생활들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소중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타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판타지 동화입니다.



멋지다! 안별 가족

이종은 글 · 김민수 그림 | 노루궁뎅이 | 2014년 | 6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내 동생이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 동화책의 주인공인 안별의 새엄마는 코끼리가 사는 나라에서 왔어요. 얼굴도 까맣고 우리 나라 말도 서툰니다. 그래서 동생의 얼굴도 다르지요. 숙제로 가족을 그리면서 고민하는 안별, 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까만 동생도 나처럼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가족이란 한 명이라도 슬픈 얼굴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별네 가족 그림은 모두 활짝 웃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임정은 글 · 문훈홍 그림 | 창비 | 2018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집이란 어떤 공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작가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집은 개인이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곳을 보여줍니다. 움푹과 판다, 먹물은 살고 있던 집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로 의기투합하고 돈이 없어도 모두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아 나섭니다. 단풍나무가 있는 오래된 집을 구해 '모두를 위한 집'을 만들고 도군이 라는 친구까지 포함해 넷이 함께 살게 되지요. 물론 함께 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며 '공유주택'의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글 · 윤정주 그림 | 창비 | 2014년 | 55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보통 사람들과 좀 달라 공공시설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흠, 키가 너무 커서 버스 타기가 힘들 지는 않았나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목이 긴, 주인공 목기린 씨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포용과 개선을 모색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무지개

김진기 글 · 김재홍 그림 | 푸른책들 | 2007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나는 어리고 내 엄마는 앞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엄마랑 이야기를 나눌
까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엄마와 무지개를 매개로 교감을 나눴
니다. 빨강은 빨개진 아이의 볼을, 노랑은 엄마가 좋아하는 민들레꽃을…….
무지개를 통한 사물의 표현을 엄마와 아이의 단순한 색깔의 알림이 아니라 힘
든 현실을 밝음으로 바꾸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무지개 욕심괴물 - 어린이를 위한 탈핵 이야기

김규정 글 · 그림 | 철수와영희 | 2014년 | 60쪽 | 평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
진 핵발전소인 ‘욕심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인 ‘무지개 욕심괴물’은 눈
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는 괴물입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
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다가온 욕심 괴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책은 방사선의 무서운 위력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무지개 욕심괴물
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 예르보 글 · 그림 | 김버리 옮김 | 한울림어린이 | 2015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바람은 어떤 색깔까요? 이 그림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색을 찾아 나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의 소년과 함께 감각으로 바
람을 느껴보세요. 바람은 무슨 색깔까요? 소년이 만나는 많은 다양한 대답들
에서 우리는 바람의 색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의 색은 다 달라요. 하지만 어찌
면 다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람은 무슨 색이죠? 바람의 색깔은 내 마음과
같아요. 지금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보 야쿠프

올프 스타르크 글 · 사라 룬드베리 그림 | 이유진 옮김 | 한겨레어린이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 라고 놀리면 어떤가요? 야쿠프는 친구들로부터 '바보 야쿠프' 라고 놀림을 당해요. 그래서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늘 고민이었지요. 하지만 삼촌은 바보도 좋은 거라고 해요. 남들을 많이 웃기니까요. 실제로 야쿠프는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친구들을 많이 웃기죠. 사실 야쿠프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야쿠프처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며 남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상처받지 말고 내 안의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아이

트루디 루드위그 글 · 패트리스 바톤 그림 | 천미나 옮김 | 책과 콩나무 | 2013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딱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면 어떨까요? 힘이 날거예요. 이 책속 브라이언도 자기를 알아주는 저스틴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친구인 저스틴도 브라이언의 친절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서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책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와 서로 그런 배려와 존중의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아요.



비밀

허은미 글 · 박현주 그림 | 문학동네 | 2012년 | 40쪽 | 아동성폭력

누구나 비밀은 있지요. 하지만 아픈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 그런 비밀이 생기면 그 비밀은 없애야 해요. 누군가에게 잘 풀 수 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이 그림책은 아이가 당한 성적 아픔의 비밀을 다루었어요. 아픔이 없는 세상은 없을가요? 언제나 당당하게 나의 생각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빨간 볼 -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

안 더 킨더르 글·그림 | 정신재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크게 진행되어 난감한 적 없나요?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일이 많지요. 이 책 속의 주인공도 그냥 재미있고 신기해서 친구에게 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크게 확대되어서 그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결과를 낳았지요. 이제 그만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어찌죠?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씩 풀어가야 할거예요. 이 책을 읽다보면 좋은 방법이 숨어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스테판 미에루 글·세바스티안 세브레 그림 | 박나리 옮김 | 책속물고기 | 2016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세상이 하나의 마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만들고 도시가 생기고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쉴 새 없이 돌립니다. 하지만 기계를 돌려도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기계를 돌려야 할 석유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돼요. 사람들은 불편한 삶 속에서 기쁨을 찾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 속에서 찾아 보세요.



새 할머니

엘리자베스 슈타인켈너 글·미하엘 로어 그림 | 이미옥 옮김 | 북비 | 2012년 | 25쪽 | 세대 간의 이해

우리 할머니가 그동안의 많은 기억들을 잊어 버리고 다른 할머니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할머니를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이 필요할 거예요. 다시 아이처럼 되어서 집안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사실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의 할머니를 인정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그림책 속 가족은 조금씩 새 할머니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새터민 이야기 -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경아 글 · 신나경 그림 | 거인 | 2013년 | 132쪽 | 북한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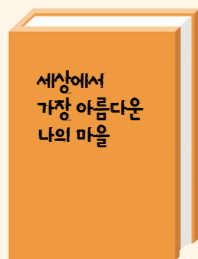
국경을 넘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쪽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남쪽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 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사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남쪽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차별해야 할까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글 · 그림 | 서애경 옮김 | 사계절 | 2015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 선생님이 무서운가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웃고, 울고, 먹고, 놀기도 하지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선생님께 벌도 받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학교 밖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데 의외로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가오고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몬스터가 아님을 알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고바야시 유타카 글 · 그림 | 김지연 옮김 | 미래M&B | 2003년 | 48쪽 | 평화
꽃 피고 맛난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새들은 날아다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 어느 날 전쟁으로 대포소리가 나고 내 옆에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우리 나라 가까이 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의 한 평화로웠던 마을이 전쟁으로 없어졌어요. 가족 중 형제도 없어졌어요. 전쟁은 끔찍해요. 이 그림책은 전쟁으로 아름다웠던 마을이 없어져버려서 그때 그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의 열쇠를 안겨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

오진희 글 · 김재홍 그림 | 내인생의책 | 2014년 | 60쪽 | 평화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힘이 세야 하나요? 돈이 많아야 하나요?
아닐 거예요. 이 그림책 속 먼지는 무조건 힘이 세야한다고 생각해 힘이 세지고 누군가에게 포를 쏘는 대포가 되지요. 하지만 훌륭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힘으로 누르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던 먼지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도대체 훌륭한 건 어떤 걸까요? 이 책을 보면서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를 보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물리 뱅 글 · 그림 | 박수현 옮김 | 책읽는곰 | 2015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피. 자기가 좋아하는 너도밤나무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타고 오르고, 보고, 만졌던 느낌을 최대한 그림에 살려내려 애쓰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소피 그림을 보고 괴상하다며 키득거립니다. 속이 상한 소피는 사라지고만 싶습니다. 지은이는 소피와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 저마다 표현 방식이 다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수요일의 눈물

최은영 글 · 허구 그림 | 바우솔 | 2012년 | 103쪽 | 평화

억울한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할머니들. 20년 동안 그들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하는 할머니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책 속 할머니들은 그런 솔직한 사과를 바라지요. 이런 마음이 평화입니다.



시금치가 울고 있어요

카마타 미노루 글 ·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 | 엄혜숙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6년 | 40쪽 | 환경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해 버렸어요. 시금치가, 쌀이, 가지미가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젖소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영롱하던 땅 위의 생명체들이 자신의 색깔을 잃고 검은 빛으로 변해 버렸어요. 바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말이지요. 지은이는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지은이 바람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가 되도록 무엇을 할지 떠올려 볼까요?



신나게 자유롭게 땀

황선기 글 · 정진희 그림 | 베틀북 | 2013년 | 136쪽 | 아동인권

신나게 축구하고 싶나요? 신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이 책은 너무나 풍족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학원을 전전하는 한국 아이와 지구 반대편에 같은 또래의 축구공을 바느질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 다 행복할까요? 한 아이는 보호라는 망에서 허덕이고, 한 아이는 노동 학대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인권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해서 신나게 할 수 있음에서 올 거예요.



신발 신은 강아지

고상미 글 · 그림 | 스콜라 | 2016년 | 44쪽 | 동물권리

집 잃은 강아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쌍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여 집에 데려와 키우고 싶지요. 사실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애완용으로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힘들면 버리기도 하지요. 요즘은 버려진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이 그림책은 동물들에게도 생각과 그들만의 감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리 페이지 후양 글 · 그림 | 노영주 옮김 | 국민서관 | 2013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그림책의 주인공 링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악기를 모아요. 동생이 찰흙으로 만든 오카리나를 선물하고 그 오카리나로부터 아름다운 그너만의 소리를 들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느껴지는 소리를 동생에게 들려주지요. 지평선으로 두둥실 떠가는 빨간 풍선의 소리, 연못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 소리. 그녀에게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아킴 달린다

클로드 K. 뒤브와 글 · 그림 | 김희정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013년 | 96쪽 | 평화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우리는 무작정 도망 가야할까요? 아킴은 달립니다. 전쟁의 무서움으로부터 도망 가야하니깐요. 누가 일으켰고,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전쟁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헤어져야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포로가 되어야 하고, 보호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이 전쟁이 끝나기는 할까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아킴에게 평화로운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아킴은 달리고 또 달려요....



양들은 지금 파업 중

장 프랑수아 뒤몽 글 · 그림 | 이주희 옮김 | 봄봄 | 2010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늘 해오던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마음은 어떤가요?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이 그림책의 양들은 자신들만 털을 깎아야 하는지에 불만이 생겨 파업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개와 여러 동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디든 무슨 일이란 쪽으로 치우치면 불만이 생기지요. 우리의 삶도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까워요.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루스 반더 지 글 · 로널드 힘러 그림 | 여우별 옮김 | 맑은가람 | 2009년 | 32쪽 | 평화

4살 때 전쟁으로 엄마도 잃고, 두 눈까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책 속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폭탄 소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만 들리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죽으면서 엄마가 말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였습니다. 9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엄마의 목소리는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지요. 바로 진실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얼음 땡!

강폴 글 · 그림 | 용진주니어 | 2014년 | 46쪽 | 관계의 소중함

놀이에서 깽두기를 해본 적 있나요? 깽두기는 왕따가 아니에요. 놀이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짝이 맞지 않을 때 모두 함께 놀기 위해 만들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깽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깽두기는 소중한답니다. 놀이를 무난하게 이끌 기도 하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지요. 차별없이 모두 어울리는 놀이를 해요, 우리.



엄마에게

서진선 글 · 그림 | 보림 | 2014년 | 42쪽 | 평화

6.25전쟁을 알고 있나요? 우리 나라는 1950년도에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이 터졌답니다. 전쟁은 가족을 다 헤어지게 만들지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엄마와 헤어져 영원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엄마가 보낸 봉숭아 씨를 받아 심어서 꽃을 보면서 엄마가 자주 부르던 봉숭아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리움이지요. 아픔이지요. 전쟁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왕가리 마타이

프랑크 프레보 글 ·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 정지현 옮김 | 문학동네어린이 | 2012년 | 45쪽 | 인권-인물

누군가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책 속 왕가리 마타이는 케냐 사람입니다. 그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온 국토가 벌거숭이로 변한 사실을 거부했지요.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한다고 말하고 함께 행동으로 옮기지요. 나무를 심고 또 심고, 심어서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케냐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일을 했지요.



왜 내 동생이죠?

레베카 오로스코 글 · 로사나 파리아 그림 | 유 아가다 옮김 | 고래이야기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면 나는 어떨까요? 왜 하필 내 동생이, 다른 친구들 동생은 멀쩡한데 내 동생은 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하지만 동생과 잘 놀아주기도 하고 동생과의 일들을 일기로 5년 동안 기록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니깐요. 그리고 동생은 잘 웃어주니깐요. 사랑이 있으면 장애에서 오는 편견은 없어 진답니다.



우리 엄마는 외국인

줄리안 무어 글 · 메일로 소 그림 | 박철화 옮김 | 봄별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미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주인공에게는 ‘그냥 엄마’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에는 주인공의 엄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엄마들이 나오니다. 생김새도, 먹는 음식도, 인사도, 아이를 부르는 말도, 특별한 날에 입는 옷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은 보통의 엄마들과 다를 게 없지요. 그래서 주인공은 엄마가 남들 눈에는 특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그냥 엄마’인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요

황동진 글·그림 | 낮은산 | 2012년 | 44쪽 | 교육받을 권리

우리는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학교에 갈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지구의 다른 곳곳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그림책 속 케냐, 캄보디아, 콜롬비아, 네팔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아주 힘들게 가야해요. 밀림을 지나야하기도 하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뱃줄로 건너야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집 안 일을 해야 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서지원 글·이미정 그림 | 소담주니어 | 2014년 | 56쪽 | 인권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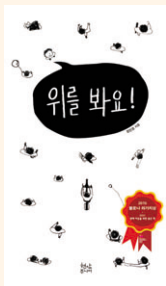
우리는 내가 누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책은 교육을 받을 권리, 마음껏 놀 권리, 내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전쟁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꿈 꿀 권리, 굶주림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노동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집이 더 비싸거든

강효미 글·마정원 그림 | 파란정원 | 2010년 | 96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요즘 아이들은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는지에 따라 친구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책 속 주인공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작지만, 아파트도 아니지만 꽃밭이 있고, 강아지 집도 있고, 햇볕 드는 곳에 빨래도 널 수 있고.... 나는 이런 집이 하늘도 보이지 않는 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위를 봐요!

정진호 글 · 그림 | 은나팔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매일 눈길을 주던 곳에서 벗어나 오늘은 다른 곳을, 다른 시선으로 한 번 바라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몸이 불편하여 집 아파트에서 늘 아래만 내려다보던 아이에게 어느 날 위를 쳐다보는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도 변화를 느껴요. 좀 다르게 바라보세요. 어제와 다르게 보는 눈과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 할거예요.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채인선 글 · 김우선 그림 | 미세기 | 2015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만 잘 살면 될까요? 모두 함께 잘 살아야 될 거예요.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예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지요. 이웃과 지켜야 할 의무, 각자 누려야 할 권리 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먼저 행할 때 우리 주변은 조금씩 변화할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지요. 내가 평화로우면 이웃도 평화로울 거예요.



잘 자요, 대장

발아마드 아크바푸르 글 · 모테자 자헤디 그림 | 마음물꼬 옮김 | 고래이야기 | 2011년 | 22쪽 | 평화

전쟁은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어른들이 그들의 이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전쟁으로 이 그림책 속 소년은 엄마를 잃고, 다리 한 쪽을 잃게 됩니다. 소년은 상상해요. 엄마를 죽인 군인에게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을. 그러나 그 군인도 한 쪽 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힘없는 노인이나 어린이, 여자들이 피해를 보지요. 전쟁은 어디에도 없어야 해요.



적

다비드 칼리 글 · 세르주 블로크 그림 | 안수연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 64쪽 | 평화

나의 '적'은 누구인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고 또 싸우지요. 그러다 모든 것이 파괴되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적'이 무엇인지 '적'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철학적 그림책입니다. 두 명의 병사가 서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초소에서 겨루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게 되지요. 적으로만 알았던 상대방도 나와 같이 감정이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붕이 있는 집

리자통 글 · 정후이허 그림 | 나진희 옮김 | 산하 | 2011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알까요? 당연한 사실에 불과하니까 그 고마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 책속 아이는 거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죽었고, 어머니마저 죽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생쥐 한 마리 그 생쥐도 소독 때문에 없어지지요. 아이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요. 그러다 죽기 전에 거리의 사람들이 보호소에 오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요. 처음으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이 소년은 행복하게 죽어갑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이로 부이트라고 글 · 라파엘 요크텐 그림 | 김정하 옮김 | 노란상상 | 2013년 | 32쪽 | 평화

세상은 좀 무서워요.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참 좋겠지요. 이 그림책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멀고, 기다리는 동생을 위해 빨리 가야해요. 그때 수호천사처럼 사자가 나타납니다. 든든한 친구이지요. 이제 소녀는 무섭지 않아요. 힘이 나요. 소녀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희망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탄 날

테리 패리쉬 글 · 켄 달리 그림 | 김주열 옮김 | 스콜라 | 2016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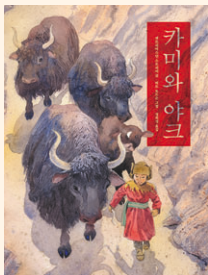
아프리카 난민촌에 사는 조셉은 자전거를 타보는 게 소원이예요. 하지만 조셉의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돼요. 새로 살게 된 아파트에서 발견한 빨간 자전거 하나. 조셉은 그 빨간 자전거가 타고 싶어 애가 탑니다. 드디어 조셉에게도 자전거를 타게 되는 날이 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싶은 조셉의 열망, 그리고 자전거 하나로 친구가 되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친해질 수 있을까?

초지무라 노리아키 글 · 하지리 토시카 그림 | 유문조 옮김 | 스콜라 | 2017년 | 32쪽 | 관계의 소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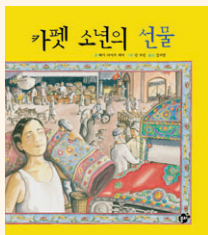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친구랑 짝궁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주인공 나는 운동회에서 자신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그 녀석'과 이인상각 경기를 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연습경기에서 티격태격하다 결국 넘어지게 되지요. 하고 후 남아서 연습을 해보지만 여전히 호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를 통해 둘은 한마음이 되고 운동회도 무사히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둘의 성향이 바뀐 것은 아니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카미와 야크

앤드리아 스텐 스트리어 글 · 버트 도드슨 그림 | 정희성 옮김 | 보림 | 2017년 | 56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미국에 사는 작가는 네पाल을 여행하면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은 청각장애 때문에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독창적인 몸짓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곤 했습니다. 작가는 그 소년을 모델로 하여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지요. 청각장애를 가진 주인공 카미가 천둥번개가 치는 곳엔 날새 속에서 길 잃은 야크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과정이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아버지와 형에게 야크 가족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행동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카펫 소년의 선물

페기 다이츠 세어 글 · 린 모린 그림 | 김지연 옮김 | 꿈터 | 2012년 | 44쪽 | 아동인권

어딘가에 갇혀서 온 종일 일만 해야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학교도 못가지요. 파키스탄의 한 소년은 집이 가난해서 온 종일 일만 해야합니다. 어느 날 아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인권운동을 하게 되지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노동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지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아동이 강제로 노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요. 이 그림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콧수염 형제

알렉스 쿠소 글 · 샤를 뒤테르트르 그림 | 백선희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4쪽 | 인권의 이해

누군가가 힘으로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힘으로 싸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극이나 코미디로 반대운동을 하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아시아의 어떤 독재국가에 실제 있었던 코미디의 역할을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무조건 무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그림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평화를 들려줄게

웬디 앤더슨 홉퍼 글 · 그림 | 최성현 옮김 | 불광출판사 | 2013년 | 42쪽 | 평화

나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평화는 어디에나 있지요. 놀이터에도, 집에도, 학교에도, 어디에도 평화는 있지요. 단지 우리는 그 평화를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기도 해요. 평화는요, 바로 나 옆에 나와 함께 있어요. 찬찬히 이 그림책을 보아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요. 편안해져요~ 이것이 바로 평화랍니다.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명수정 글 · 그림 | 글로연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소리를 본 적이 있나요? 소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요? 이 책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와 변주곡 1번부터 4번까지를 피아노로 연주한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리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음을 시각화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독자들이 피아노 음악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음을 표현한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수한 가공을 해서 손으로 만져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한부열의 선물

한부열 그림 · 전수빈 글 | 밝은미래 | 2017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이 책은 글보다는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실을 뽑아 그물을 엮는 거미, 점찍기 놀이를 하는 무당벌레, 밝은 빛을 뿜내는 반딧불이, 나폴나폴 춤추는 나비 등이 시각적 즐거움을 주거든요. 이 책에 그림을 그린 한부열 작가는 자폐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30cm 자를 이용해 수정 없이 단번에 그림을 완성하는 게 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우산마을

김동현 외 지음 | 바람의아이들 | 2014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시설에서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동화책이에요. 우산마을에 우산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나고 즐거운 일상들을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평소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음을 우산마을의 한 강아지를 통해 알게 되고, 서로 나누고 보듬고 하여 행복한 마을을 꾸며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면 행복하지요. 무엇보다도 모두 힘을 합쳐 동화책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나게 해요.



형, 나를 지켜 줘!

박현숙 글 · 김미현 그림 | 북스토리아이 | 2013년 | 128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내 형이나 누나, 언니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지요. 이 책 속 주인공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엄마와 형을 잘 받아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힘들어해요. 단지 좀 다를 뿐인데 잘하는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놀리고 멀리하는 요즘 아이들... 이 책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보고 현실에서 실천하는 힘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2018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초등학교 고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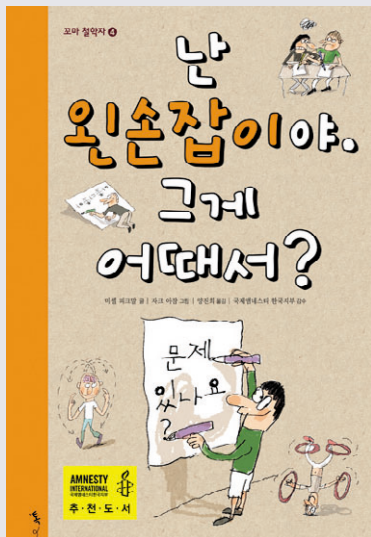


난 왼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왼손을 쓰는 이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거나 ‘왼손잡이세요?’ 하고 묻곤 하지요. 예전보다는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왼손잡이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왼손잡이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으며, 오른손잡이가 더 많은지, 왼손잡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왜 왼손잡이는 억압을 받아왔는지, 기독교가 왼손잡이를 박해한 이유는 뭔지, 왼손잡이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 등 왼손잡이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은이는 왼손잡이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책은 왼손잡이로 대변되는 소수자의 차별에 대해 생각해 합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다르고 차별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셸 피크말 글 · 자크 아잠 그림 |
양진희 옮김 | 특 | 2015년 | 68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의사, 박사, 유엔사무총장, 과학자 등 장래희망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누구도 자신이 비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일곱 가족의 이야기 안에 엄마, 아빠는 시간강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간병인, 계약직 방송작가, 계약직 공무원, 프리선언 번역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이야기도 무겁고, 비참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지금의 사회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리는 정말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장래의 꿈이 '무엇이 될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소소한 이야기들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책 작가모임 글 · 그림
| 사계절 | 2012년 | 162쪽 | 노동권



빨간 자전거 - 평범한 자전거가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빨간 자전거 한 대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 자전거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도움을 주게 되지요. '빅 레드'는 북아메리카에 사는 소년 레오가 2년 동안 꼬박 저축한 돈으로 산 빨간 자전거입니다. 레오의 키가 크면서 빅 레드를 타는 게 불편해졌고, 레오는 자전거를 모으는 단체에 빅 레드를 기증하게 됩니다.

빅 레드는 북아메리카를 떠나 서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년 알리세타를 만나 그의 빠른 발이 되어 줍니다. 수수밭에 갈 때, 시장에 갈 때,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알리세타는 빅 레드를 타고 갑니다. 알리세타는 빅 레드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여윌돈이 생겨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 레드가 망가지게 되고, 알리세타는 부카리라는 사람에게 빅 레드를 보내주지요. 부카리는 빅 레드를 고쳐 구급차로 변신을 시킵니다. 응급환자가 타는 트레일러를 달아서 말이지요.

이 책은 자전거 한 대가 여러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처럼 실제로 자전거를 기부받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혹시 쓰지 않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전거를 기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드 이사벨라 글 · 시모네 신 그림 |
엄혜숙 옮김 | 머스트비 | 2015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빼떼기

작고 상처 입은 생명체를 향한 온 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빼떼기’는 순진이네 암탉 ‘깜둥이’가 낳은 병아리인데요, 어느 날 아궁이 불에 데이고 맙니다. 솜털은 타버리고, 부리는 문드러지고, 발가락은 떨어져 나가게 되지요. 그때부터 순진이를 비롯한 가족들은 빼떼기를 살뜰히 보살피게 됩니다. 빼떼기와 같이 태어난 병아리들은 물론 엄마인 깜둥이에게까지 버림받은 빼떼기를 가족들은 안타깝고 애달픈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빼떼기가 어느 병아리들처럼 잘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지요.

책을 읽고 나면 뜻하지 않는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빼떼기의 생존기가 눈물겹게 느껴집니다. 빼떼기를 응원하는 순진이네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상처 입은 생명체를 가엽게 여기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몽클함이 일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도 순진이네 가족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권정생 글 · 김환영 그림 | 창비 | 2017년 | 68쪽 | 평화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시란 씨는 성실하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요. 시란 씨는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해도 자신과 상관없는 먼 나라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란 씨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만 시란 씨는 비 맞는 것을 좋아해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은 그런 시란 씨의 행동을 문제 삼고, 모두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이라며 그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 후 그의 동료와 친구들은 시란 씨에 대해 수군거리다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에 사는, 한 번도 시란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그를 위해 장관에게 항의 편지를 쓰고 시란 씨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회원들로 세상은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다니카와 순타로 · 국제앰네스티 글
· 이세 히데코 그림 | 김향 옮김 |
천개의 바람 | 2017년 | 32쪽 | 인권의 이해



인권아 학교 가자

아이들이 묻습니다. 맞을 짓이란 정말 있을까요? 왜 남자는 1번이고 여자는 왜 51번이예요? 소지품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왜요라고 하면 왜 안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구요? 그것이 왜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이 책은 학교에서 마주치기 쉬운, 그리고 대개 당연한 사실처럼 여기고 있는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장은 네 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를 통해 인권 침해 장면을 보여준 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후에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와 선생님님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요.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제대로 교육 받고 쉼 권리, 직접 참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기규 작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선생님은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기규 글 · 김진화 그림 | 아이세움 |
2018년 | 92쪽 | 인권의 이해



춘희는 아기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언제 불려도 짝하게 가슴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림책이 있어요.

어느 초라한 집 마당에는 하얀 기저귀 빨래가 널려있습니다. 할머니의 아기 춘희는 마흔 세 살의 아기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피해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춘희, 그 아이를 위해 엄마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이 그림책의 그림 작가는 전쟁으로 입은 아픔을 기저귀 천에 솟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빨간 꽃과 주인공 아이, 그 아이를 통해 보여 지는 할머니의 한과 아련한 고국에 대한 향수가 그림 속에 아프게 묻어 있습니다.

한 때의 전쟁으로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지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서로 조금씩 나누고, 보듬는 마음에서 들꽃이 받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다가 오지요.



번기자 글 · 정승각 그림 | 박종진 옮김 |
사계절 | 2016년 | 40쪽 | 평화



강냉이

권정생 글 · 김환영 그림 | 사계절 | 2015년 | 36쪽 | 평화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책은 집 모퉁이 토담 아래에서 한 아이가 가족과 함께 '강냉이(옥수수)'를 심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강냉이가 무럭무럭 자라길 기다리는 아이의 평화로운 일상이 전쟁으로 인해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나선 아이는 전쟁의 아픔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토담 아래 심어 놓은 강냉이가 걱정됩니다. '지금쯤 수염 나고 알이 났을 텐데...'



개성빵

문영숙 글 · 이상운 그림 | 아이앤북 | 2013년 | 176쪽 | 북한인권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기태와 기옥이도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북한에서 온 친구입니다. 그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낮은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태와 기옥이는 다시 힘을 냅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희망하며...



건수 동생, 강건미

박서진 글 | 바람의아이들 | 2016년 | 160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지적 장애를 가진 건수와 남다른 영재성을 지닌 건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건미가 장애를 가진 건수를 자신의 오판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주 작은 배려가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경극이 사라진 날 -1937년, 친화이하 강가에서

야오홍 글·그림 | 전수정 옮김 | 사계절 | 2011년 | 32쪽 | 평화

공연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춤을 결들인 동극을 보면서 경극배우의 몸 사위에 웃고, 울고 가슴 설렘을 맞본 소녀, 그리고 다음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는 난징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뒤로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 그림책은 평화의 소중함과 전쟁의 잔인함과 무서움을 알려줍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글 글·한수진 그림 | 살림어린이 | 2013년 | 208쪽 | 북한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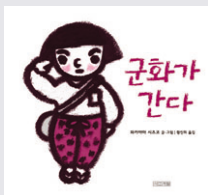
어린이는 보호 받아야 하고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는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인공 강일이를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북한과 탈북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꿈꾸는 자유와 희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군함도 -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윤명영 글·그림 | 우리교육 | 2016년 | 40쪽 | 평화

‘군함도’는 2015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무인도에 숨겨진 가슴 아픈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열두 살 쇠돌이는 일본에게 강제로 끌려가 군함도에 있는 탄광에서 열두 시간씩 석탄을 캐니다. 하지만 끼니로 받은 것은 고작 주먹밥 한 덩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말지요. 그곳에서 살아서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쇠돌이처럼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군함도에 갇힌 강제노역한 사람은 조선인 청년을 비롯해 800여 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 수만 122명이라고 합니다.



군화가 간다

와카야마 시즈코 글·그림 | 황진희 옮김 | 사계절 | 2014년 | 44쪽 | 평화

“척,척,척,척”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군화가 들려주는 전쟁이야기입니다. 군화는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국가도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다.” 군화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천진난만한 소녀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살아간다. 나의 미래에는 전쟁 따위는 필요 없다.”



그 꿈들

박기범 글·김종숙 그림 | 낮은산 | 2014년 | 128쪽 | 평화

이 책은 이라크 전쟁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직접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 민간인들과 함께 전쟁을 겪으면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의 얼굴과 사연을 담 아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곳의 아이들,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그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많은 군인들도 꿈을 가지고 있었 지요. 하지만 그 많은 꿈은 전쟁으로 인해 스러져 갔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레아 필리키 글·이인아 그림 | 강효원 옮김 | 어린이작가정신 | 2015년 | 188쪽 | 아동인권

이 책의 주인공 제이크는 열 살인 나이에 ‘죄수 번호 88’로 아이다호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지만, 제이크는 교도소 생활에서 뜻밖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이전 생활이 암담하기도 했지만, 교도소 안에서 어린 수감자에 대한 연민으로 제이크를 돌보는 따뜻한 손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곳! 교도소 사람들도 아이를 돌봅니다. 세상의 모든 아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보호 받아야 합니다.



김금이 우리 누나

장경선 글 · 김은주 그림 | 우리교육 | 2012년 | 132쪽 | 평화

우리 나라의 아픈 역사,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제로 지배하던 시기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행하는 폭력과 차별,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픈 역사 안에 비극과 슬픔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동무가 있고, 놀이가 있고,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이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꽃할머니

권윤덕 글 · 그림 | 사계절 | 2010년 | 48쪽 | 평화

“난 꽃이 좋아. 사람들이 꽃 보고 좋아하듯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평화는 함께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세상에서 오지요. 이 그림책은 우리에게 아픔을 알려줍니다.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한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누구나 소중하지요.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그런 세상을 꿈꿔요.



나,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 별

프리다 닐슨 글 · 올프 K 그림 | 김영진 옮김 | 시공주니어 | 2017년 | 264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국화 고아원에서 살던 온나 역시 자신을 입양한 고릴라의 첫 인상을 보고 반감을 갖지만 함께 살면서 고릴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무섭게 생긴 외모와 달리 고릴라가 무척 따뜻하고 배려 깊으며 섬세하고 낭만적이라는 것들요. 아무 것도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

베르나르 상바즈 글 · 바루 그림 | 양진희 옮김 | 초록개구리 | 2012년 | 36쪽 | 평화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은 미국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 혐오주의 속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낫시르의 친구는 낫시르의 아빠가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이슬람교라는 이유로 낫시르가 겪은 아픔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전쟁과 테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나는 슈갈이다

한영미 글 · 남궁선하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5년 | 168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을 소재로 하는 동화책입니다. 때로는 신체적 폭력보다 말로 가해지는 폭력이 더 아프고, 상처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은 괴롭힘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다가 '방패말'로 슬기롭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태양

우메다 순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 · 그림 | 이기웅 옮김 | 길벗어린이 | 2014년 | 24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은 한 소년이 어른 유학을 통해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가며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가야 형이 말한 '굵은 밧줄 (배와 배를 잇는 밧줄처럼 배가 바다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는 밧줄)처럼 '우리' 라는 밧줄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태양처럼 밝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글 · 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1년 | 151쪽 | 인권의 이해

어린이에게 '권리'가 무엇인지, 어린이들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인권 이야기를 실생활과 연결 지어 만화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나갑니다. 어린이들이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나 자신의 권리만큼 다른 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평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엘리자베스 버딕, 필리스 카우프만 굿스타인 글 · 신민재 그림 | 전지숙 옮김 | 길벗스쿨 | 2014년 | 128쪽 | 관계의 소중함

도래 집단에서의 왕따나 괴롭힘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주변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라고. 그리고 책 표지를 통해 '친구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역할극과 OX 퀴즈를 통해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무 도장

권운덕 글 · 그림 | 평화롭음은책 | 2016년 | 60쪽 | 평화

제주4·3사건 당시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한 평화와 인권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멋진 여행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 아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 시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쁜 초콜릿

샬리 그린드리 글 · 문신기 그림 | 정미영 옮김 | 봄나무 | 2012년 | 224쪽 | 아동인권

온종일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의 열매를 따고, 껍질을 벗기느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한 번도 초콜릿을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아동인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고단한 삶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은 걸까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날아간 작은 새

이수배 글 · 김형근 그림 | 한림출판사 | 2014년 | 16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주인공 도현이는 희귀 근육병에 걸려 휠체어에 앉아 지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나마 새가 되어 마음껏 날고 싶습니다. 도현이는 끝까지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살아가는 동안 저한테 가장 소중한 일을 찾고,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낡은 사진 속 이야기

전룡 글 · 그림 | 전수정 옮김 | 사계절 | 2015년 | 48쪽 | 평화

그림책 속 두 청년의 우정 이야기 뒤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청년을 갈라놓은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그들게겐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낡은 사진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국가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우정을 갈라놓고 아픔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자비한 폭력과 참혹함이 있습니다.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내 이름은 말랄라

허운주 글 · 오세영 그림 | 삼성당 | 2014년 | 136쪽 |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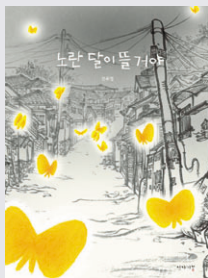
말랄라는 11살의 어린 나이에도 탈레반 정권의 탄압 속에서 여성의 교육과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 여성인권 운동가입니다. 목숨에 위협을 느끼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활동이지만 끈기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랄라는 말합니다. “저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6,600만 명의 아이들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 씨름왕자

송언 글 · 유승하 그림 | 웅진주니어 | 2015년 | 192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생활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친구 관계입니다. 특히, 요즘은 왕따와 괴롭힘으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관계 맺기 이야기가 전개 됩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강동훈에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고, 결국 문제를 풀어 나가는 열쇠는 반 친구들의 관심과 애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노란 달이 뜰 거야

전주영 글 · 그림 | 이야기꽃 | 2016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세상에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책입니다. 첫 장을 펼치면 아이가 그린 그림 속 노란나비가 보입니다. 그림에서 나온 나비가 날아가고 아이는 나비를 따라 동네 곳곳을 구경합니다. 마치 아빠와 함께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비와 함께 찾아가는 그곳은 지난 날 아빠와 함께 했던 기억의 장소들이지요. 나비와 아이의 여행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야기를 따라가다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쯤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노숙인 인권학교

그자비에 에마뉘엘리 · 소피 보르데 글 · 레미 사이아르 그림 | 배행은 옮김
| 독 | 2017년 | 76쪽 | 함께 사는 세상

‘노숙인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에요!’ 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에요. 노숙인에 관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엮여 있지요. 노숙인이 왜 생기는지부터 노숙인이 살아가는 모습,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노숙인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노숙인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류은숙 글 · 원혜진 그림 | 양철북 | 2015년 | 112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이 책에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은 숲과 같다고 합니다. 서로 버틸 힘을 마련해 주고 곤란이 닥쳤을 때 해결 방법을 서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하나의 소중한 ‘나’가 모여 ‘우리’가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 프인돌어린이 | 2015년 | 152쪽 | 동물권리

동물들도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의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긴 동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고통당하는 실험실 동물들, 모피를 만들기 위해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동물들, 작은 우리 안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물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동물들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도서관 할아버지

최지혜 글 · 엄정원 그림 |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만든 '도서관 할아버지' 이인표 기업가 이야기입니다. 도서관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되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레 어린이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맘껏 책을 읽고 그걸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서였어요. '도서관 할아버지'는 전국 곳곳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고, 지구 별을 떠나면서도 도서관 운영이 잘 되길 당부하는 말을 잊지 않았답니다.



돼지 이야기

유리 글 · 그림 | 이야기꽃 | 2013년 | 40쪽 | 동물권리

2011년 우리나라 전국을 휩쓴 구제역과 그로인해 살처분된 돼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은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야 할까요? 이 책을 통해 구제역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공장식 축산 방식 등 동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편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모르는 척 덮고 지나쳐야 할까요?



뒷간 지키는 아이

김해우 글 · 이수진 그림 | 교학사 | 2014년 | 168쪽 | 차별 · 편견

최진사는 밤에 뒷간에 갈 일이 생기면 솔개를 앞장세워 등불을 밝히고 뒷간을 지키게 합니다. 최진사의 설사병 때문에 솔개는 밤을 설치는 날이 많입니다. 솔개는 노비의 신분으로 고단한 일상과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힘겹게 살아 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솔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평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딸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람리 글·에스텔 비용-스파놀 그림 | 박정연 옮김 | 노란돼지 | 2018년 | 40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에는 딸의 권리를 주장하는 15개 조항이 실려 있습니다. 그 조항들은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흐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마음껏 까볼 수 있는 권리, 마음에 드는 모든 색깔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맞서 싸우고 화를 낼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굴레에 갇히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책은 유쾌한 권리 주장을 통해 딸들이 여성이라는 성역할에 갇히지 않게끔 당연시 여겼던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모르는 척

우메다 쇼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그림 | 송영숙 옮김 | 길벗어린이 | 1998년 | 220쪽 | 관계의 소중함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모르는 척 하는 방관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나도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으로 모르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 속에 간직한 등불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방과 후 운동장 교실

이명량 글·유재인 그림 | 스펀북 | 2012년 | 120쪽 | 관계의 소중함

성우는 텅 빈 운동장에서 해가 지도록 혼자 노는 아이입니다. 성우를 괴롭히는 아이들 속에서 현상이는 어느새 성우와 친구가 됩니다. 왕따 친구를 대하는 현상이의 심리 변화를 지켜보면 ‘왕따’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우에게 그랬듯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 대해 잘 모른 채 편견이나 군중심리와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설희 글 · 김호민 그림 | 봄나무 | 2011년 | 163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일터를 잃은 탄광 노동자, 철거촌의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봄이 오면 가게

기시모토 신이치 글 · 야마나카 후유지 그림 | 강방화 옮김 | 한림출판사 | 176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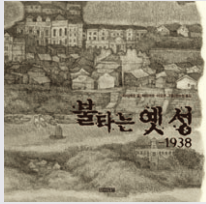
지적 장애아 유타가 일반 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로 다른 상대방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양함 속에서 매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비밀 일기

이은서 글 · 강춘혁 그림 | 국민출판 | 2012년 | 160쪽 | 북한인권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책은 북한 어린이의 일기 형식으로 북한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북한의 입학식, 소풍, 간식, 좋아하는 연예인 등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낯설지만 재미있게 느껴지는 북한말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옛 성 -1938

차이까오 글 · 아오쑤 그림 | 전수정 옮김 | 사계절 | 2014년 | 30쪽 | 평화

옛 성과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시에는 평화로운 일상과 그 일상이 안겨 주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불길로 당시 3천년의 역사가 담긴 도시와 성이 불탔습니다. 그 불길은 5일 동안 계속되었고 3만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의 시선을 통해 그 참담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빼앗아가고 아픔만을 남겨 놓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빈 공장의 기타 소리

전진경 글 · 그림 | 창비 | 2017년 | 45쪽 | 노동권

어린이들에게는 해고와 실직, 복직 투쟁, 노동조합 같은 말들이 어렵고 낯설 테지요. 이 책의 화자인 '나'도 그렇습니다. 그림 그릴 곳을 찾아 빈 공장을 찾은 '나'는 그곳에서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과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곳곳하게 복직 투쟁을 하는 그들을 응원하게 되지요. 이 책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10년 째 싸우고 있는 쿠팡쿠팡 해고 노동자들을 모티프로 삼았는데,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동 문제를 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빨래 바구니, 꿈과 희망을 담아요!

노경실 글 · 이유나 그림 | 답소스 | 2014년 | 96쪽 | 아동인권

아홉 살 소년 알루, 알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알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빨래터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계, 노동, 가난... 아홉 살 소년을 떠올리는 단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루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빨래를 차곡차곡 담을 때마다 이루고 싶은 꿈들도 함께 담는다고 합니다.



사쿠라

다바타 세이이치 글 · 그림 | 박종진 율김 | 사계절 | 2014년 | 48쪽 | 평화
그림책 속 주인공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해에 태어납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많은 사람의 목숨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 속에서도 일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일상의 평화를 누립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난 후에야 전쟁의 잔혹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수는 없는 건가요?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

아렌트 람 당 글 · 알렉스 데 볼프 그림 | 유동익 율김 | 별숲 | 2014년 | 224쪽 | 인권의 이해

어린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생존과 발달, 교육 등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0가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40개 조항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아이들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어린이 인권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김현주 글 · 권송이 그림 | 사계절 | 2016년 | 136쪽 | 함께 사는 세상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가난한 이들은 계속 존재하며 오히려 더 가난해 질까요? 이 책의 저자는 '빈곤'과 '빈곤의 해결책'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의 관점, 오랜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빈곤 문제는 멀고 먼 남의 일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오승현 글 · 소복이 그림 | 토토북 | 2015년 | 104쪽 | 함께 사는 세상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틀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에 담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올바른 표현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햇살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요.



소년, 떠나다

레베카 영 글 · 맷 오토리 그림 | 장미란 옮김 | 한울림어린이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책장을 펼치면 배를 타고 홀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소년의 쓸쓸함이 한가득 느껴집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소년에게 대한 안타까움은 더 해지지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것처럼 떠있는 배, 거친 파도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소년, 칙칙같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기다리는 소년. 하지만 그런 소년에게도 희망은 찾아옵니다. 오일페인팅으로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이야기의 감동을 더해 줍니다.



스토의 인권교실

신연호 글 · 이민혜 그림 | 시공주니어 | 2016년 | 128쪽 | 인권의 이해

《스토의 인권교실》은 아이들이 인문학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한 <수상한 인문학 교실> 시리즈 중 하나예요. 《스토의 인권교실》 주인공 재인이는 사촌과 친구를 알잡아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툼 아저씨의 오두막》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를 만나게 되고, 끔찍한 노예제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재인이는 스토를 도와 노예를 탈출시키면서 나의 인권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함을 깨닫게 됩니다.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조르지아 베츨리 글 · 마시밀리아노 디 라우로 그림 | 이승수 옮김 | 머스트비 | 2016년 | 64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여덟 살 클로에는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상한 눈으로 클로에를 바라봅니다. ‘스파이더맨 가방은 남자들이 메는 거야.’ 라는 시선으로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만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 저편

고하마 유리 글 · 김무현 그림 | 김버들 옮김 | 한림출판사 | 2012년 | 200쪽 | 관계의 소중함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주인공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꿈, 유형, 환상 등 설명하기 힘든 미지의 세계,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입니다.



시리아의 눈물, 꿈과 희망을 안아주세요!

노경실 글 · 문보경 그림 | 담푸스 | 2015년 | 88쪽 | 평화

바질은 앞마당에 꽃과 작은 나무를 기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네 어른들께 화분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천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시작되고 바질의 꽃밭은 사라지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목숨을 잃고, 많은 이들은 삶을 터전을 잃고 이웃나라에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이유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인권 선언

엘리자베스 브라미 글 · 에스텔 비용-스파놀 그림 | 박정연 옮김 | 노란돼지 | 2018년 | 40쪽 | 인권의 이해

딸들에게도 그렇지만 아들들에게도 암암리에 강요되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인형 놀이는 여자 아이들이 하는 거다, 바느질이나 뜨개질 대신 못을 박을 줄 알아야 된다, 위협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지만 사람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성 역할에 갇히지 말고 개인으로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은 것은 하지 말라고요. 이 책은 읽고 난 후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못했던 것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나만의 인권 선언서를 만들어 볼까요?



약속

니콜라 데이비스 글 · 로라 칼린 그림 | 서애경 옮김 | 사계절 | 2015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는 황폐한 도시에서 어느 소녀가 노부인의 가방을 훔치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작은 도토리 하나를 마주 하는 순간 심장에 일어난 작은 변화와 함께 '꿈꿔 본적 없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도 미래도 없던 소녀는 황무지 같은 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심장에 변화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희망을 이어갑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미겔 앙헬 캄포토니코 원작 | 전지은 글 · 안지혜 그림 | 을파소 | 2015년 | 160쪽 | 인권-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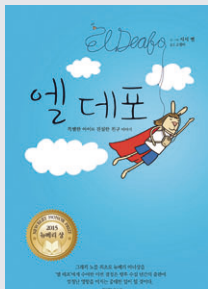
2년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든 책입니다. 무히카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동안 우루과이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늘어 실업자와 빈곤층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퇴임 후에도 우루과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무히카 대통령의 어린시절과 인생, 대통령으로서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야기

전지영, 이해진 글 · 이운 그림 | 파라주니어 | 2015년 | 144쪽 | 인권의 이해

어린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 친구들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은 지식과 정보로 접근하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엘 데포 - 특별한 아이와 진실한 친구 이야기

시시 벨 글 · 그림 | 고정아 옮김 | 밝은미래 | 2016년 | 2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특별한 소녀의 특별한 성장기’라고 하기에는 시시는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자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4살에 뇌수막염에 걸려 청각을 잃었고, 그것 때문에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녀였을 뿐이었죠. 청각 장애를 가진 엉뚱하고 발랄한 소녀인 시시가 학교를 다니며 겪는 경험과 감정이 솔직하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역사 속 인권 이야기

정용주 글 · 정현희 그림 | 리젼 | 2015년 | 116쪽 | 인권의 이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 그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세계 역사의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인권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나의 권리만큼 다른 이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뒤따를 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서진선 글 · 그림 | 보림 | 2013년 | 32쪽 | 평화

5·18민주화운동 당시 한 가족이 겪었던 일을 아이의 시선으로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아빠는 위험하니까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누나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 되었고, 그날을 기억하는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치유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 글 · 송진욱 그림 | 책속물고기 | 2016년 | 124쪽 | 인권-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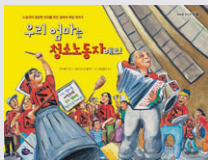
어린이라는 말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어린이날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린이 인권은 어떻게 존중받게 됐을까요? 존중받아야 할 어린이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 어린이 인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돼요. 유언으로 '어린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만큼 어린이들을 사랑한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해 준답니다.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김현식 외 글 · 이광진 외 그림 | 열다 | 2013년 | 184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은 네 명의 저자가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인권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통한 인권이야기, 역사 속에서 인권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사례, 세계인권선언,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다이애나 콘 글 · 프란시스코 텔가도 그림 | 마음물꼬 옮김 | 고래이야기 | 2014년 | 32쪽 | 노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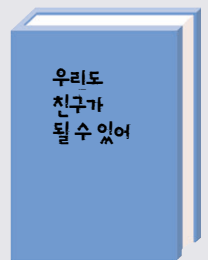
주인공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시작합니다. 카를리토스는 엄마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팻말을 만들어 시위 현장에서 함께 행진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글 · 윤정주 그림 | 책읽는곰 | 2012년 | 135쪽 | 인권의 이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설명을 넘어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로 참여와 민주주의, 환경, 사회복지, 전쟁과 평화, 평등, 장애인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관심과 연대를 통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이끌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다니엘 스테판스키 글 · 헤이즐 미첼 그림 | 전광철 옮김 | 고래이야기 | 2013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이 책의 저자는 자폐증이 있는 열네 살 소년입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우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을 잘 이해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기 위한 마음에서 라고 합니다. 자폐증이 있는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우리는 모두는 서로 다르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서지원 글 · 윤세정 그림 | 소담주니어 | 2014년 | 128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은 다섯 어린이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구걸하며 살아가는 세네갈의 발다, 마녀 사냥을 당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지안,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소피, 학교에 가는 것이 소원인 수단의 아북, 청각장애인이인 대한민국의 대한이. 다섯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세상은 암담합니다. 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화 비행기

홍성담 글 · 그림 | 평화를 품은 책 | 2017년 | 44쪽 | 평화

5월 하늘에 꽃비가 내리는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환상적이지요? 하지만 이 책에서 내리는 꽃비는 슬프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는데, 그때 온몸으로 겪었던 일과 또 실제로 있었던 두 아이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 까닭 없이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한 새날이, 그 새날이의 시신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령 놀이

서화교 글 · 소윤경 그림 | 살림어린이 | 2014년 | 184쪽 | 관계의 소중함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와 학업 부담감으로 자살한 아이를 그린 동화. 이 동화는 왕따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인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보며 독자들은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왕따로 괴로워하는 서준이와 공부 때문에 자살한 유령 재희가 서로의 몸을 바꾸고, 자신으로 인해 유령 세계로 도망간 친구를 되찾아오려는 민기의 노력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인권 논쟁

이기규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5년 | 216쪽 | 인권의 이해

각 주제별 찬반토론을 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사생활 침해, 사형제도,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 등의 인권문제와 함께 밀양송전탑,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의 사회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정리가 아닌 실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면 어때?

윤정성 글 · 홍지혜 그림 | 웃는돌고래 | 2014년 | 176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우리는 모두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다름'에 대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남과 달라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이들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따가운 시선을 보낸 이에게는 다른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타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나

서정홍 글 · 정가에 그림 | 문학동네어린이 | 2014년 | 120쪽 | 함께 사는 세상

서정홍 시인의 동시집으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총 4부로 1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2부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 3부는 이웃사람들의 이야기, 4부는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의 시어 하나하나에서 가난한 이웃과 모든 생명에 대한 따뜻한 눈길과 그 작은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아이

안미란 글 · 김현주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5년 | 16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주민증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어느 날 세 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눈’이라는 4살 먹은 아이를 두고 사라졌어요. 무국적 아이 눈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야할 인권이 있어요. 이 책 속 두 아이는 눈이에게 우주 시민증과 우주별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해요.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야마모토 미카 글 | 한승동 옮김 | 길벗스쿨 | 2013년 | 168쪽 | 평화

지금도 지구촌 저 편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폭탄이 투하되고 총을 들고 누군가를 쏘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이러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다가 총을 맞아 죽은 일본 기자, 야마모토 미카가 남긴 평화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여자, 군인들이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됨을 가슴 아프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돌

강제숙 글 · 오치곤 그림 | 도토리숲 | 2015년 | 54쪽 | 평화

1톤 무게의 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화의 돌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원폭투하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등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원폭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경남 합천에 있어요. 평화의 돌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던 곳에 아픔을 달래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1톤의 돌을 옮기는 일은 평화운동과 같습니다. 지구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 움직여야 지구가 평화로운 것이지요.



평화의 소녀상

윤문영 글 · 그림 | 이운진 영문 | 내인생의책 | 2015년 | 44쪽 | 평화

전쟁으로 약한 어린이,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힘들었지요. 특히 전쟁 중 침략한 국가에서 식민지의 여인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한 경우가 많아요. 평화의 소녀상은 동상이지요. 이 소녀상은 진실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 곳에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녀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이퐁 세탁소

원유선 글 · 백승민 그림 | 아이엔북 | 2012년 | 20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아직도 나와 좀 다르다고 차별하나요? 베트남 엄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웅이는 같은 아이들, 담임선생님까지 말과 행동으로 차별하는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니다. 웅이 엄마도 베트남 사람인 것을 숨겨요. 적응의 힘들에서 오는 반응이지요. 웅이와 웅이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현재는 세계문화가 함께 교류하는 이주 배경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할 때 이주 배경 사회는 건강해지지요.



할아버지 손

마거릿 H.메이슨 글 · 플로이드 쿠퍼 그림 | 서애경 옮김 | 꿈포출판사 | 2013년 | 30쪽 | 차별 · 편견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될까요? 과거에 백인들은 흑인들과 같은 수영장이나 운동장, 교회, 학교 같은 공공장소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한 차별이 있었지요. 이 그림책 속 할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지만, 흑인이 만든 빵은 백인들이 먹지 않는다는 차별로 빵 반죽을 할 수 없었지만, 흑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제는 손으로 뭉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을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조경희 글 · 원정민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4년 | 190쪽 | 노동권

감정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하고, 미안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마트직원이나 많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마트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구양순 여사를 통해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일회용 종이컵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잘못된 사회를 고치고자 노란조끼를 함께 입었습니다.’



황금깃털

정철아 글 · 소윤경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2년 | 235쪽 | 관계의 소중함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해미라는 아이는 친구를 왕따 시키는 일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요.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하게 되고 본인이 왕따가 되면서 괴로워하다가 황금깃털을 통해 과거 속으로 가서 과거를 지우지만, 결과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아요. 시간 여행을 다녀 온 해미는 말해요. “그래, 이제 나도 깨달았어.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요, 지금이 제일 소중한해요.

2018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찾아보기





책이름으로 찾아보기

23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14 6번길을 지켜라 똑딱

57 강냉이

23 같이 놀자, 루이!

57 개성빵

23 거짓말 같은 이야기

57 건수 동생, 강건미

58 경극이 사라진 날

24 고래가 그물에 걸렸어요

58 국경을 넘는 아이들

24 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58 군함도 -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59 군화가 간다

24 굴러라 슈퍼바퀴

59 그 꿈들

59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25 그날 밤 이후 이영준

60 김금이 우리 누나

25 까마귀 소년

25 까만 아기 양

26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8 껌장 병아리

26 깡이의 꽃밭

60 꽃할머니

15 나 좋은 점 가득

60 나,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 별

61 나는 빈 라덴이 아니예요

61 나는 슈갈이다

61 나는 태양

62 나도 권리가 있어!

26 나도 학교에 간다

62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62 나무 도장

4 나무를 만져보세요

63 나쁜 초콜릿

16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27 나와 우리

50 난 왼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8 날개 잃은 천사

63 날아간 작은 새

63 낡은 사진 속 이야기

27 내 동생 필립

17 내 마음이 들리나요

27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64 내 이름은 말랄라

64 내 친구 씨름 왕자

28 너는 어디로 가니

28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8 넌 (안) 작아

28 노각 씨네 옥상 꿀벌
64 노란 달이 뜰 거야
65 노숙인 인권학교
29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65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29 달려!
65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9 더 커다란 대포를
29 도둑맞은 이름
66 도서관 할아버지
66 돼지 이야기
30 돼지꿈
66 뒷간 지키는 아이
30 뒷집 준범이
67 딸 인권 선언

30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
18 론도의 노래
31 롤라와 나
9 롤루

31 마지막 뉴스
31 먹지 마! 곤충젤리
32 멋지다! 안별 가족
32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67 모르는 척
32 목기린 씨, 타세요!
33 무지개
33 무지개 옥심피물

9 민수야 힘내!

33 바람은 보이지 않아
19 바람을 가르다
34 바보 야쿠프
67 방과 후 운동장 교실
5 배고픔 없는 세상
34 보이지 않는 아이
68 보이지 않는 이야기
68 봄이 오면 가계
68 북한 아이들의 비밀 일기
69 불타는 옛 성 - 1938
34 비밀

51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69 빈 공장의 기타 소리
35 빨간 볼 -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
52 빨간 자전기
69 빨래 바구니, 꿈과 희망을 담아요!
53 빼빼기

35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70 사쿠라
35 새 할머니
6 새로운 가족
36 새터민 이야기 -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0 서로를 보다
36 선생님은 몬스터!
70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
70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3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37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71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71 소년, 떠나다
 37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37 수요일의 눈물
 71 스토의 인권 교실
 72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72 시간표 저편
 38 시금치가 울고 있어요
 72 시리아의 눈물, 꿈과 희망을 안아 주세요!
 38 신나게 자유롭게 땀
 38 신발 신은 강아지

 73 아들 인권 선언
 39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20 아무도 지나가지 마!
 39 아킴 달리다
 73 약속
 39 양들은 지금 파업 중
 10 어떤 느낌일까?
 73 어린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하카
 74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야기
 40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40 얼음 땡!
 40 엄마에게
 74 엘 데포
 74 역사 속 인권 이야기
 75 오늘은 5월 18일
 75 오늘은 어린이날!
 41 왕가리 마타이

41 왜 내 동생이죠?
 75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41 우리 엄마는 외국인
 76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76 우리가 바꿀 수 있어!
 42 우리는 학교에 가요
 76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42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10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77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42 우리집이 더 비싸거든
 54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77 운동화 비행기
 43 위를 봐요!
 77 유령 놀이 L2
 11 이상해
 43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78 인권 논쟁
 55 인권야 학교 가자

 43 잘 자요, 대장
 44 적
 78 조금 다르면 어때?
 78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나
 44 지붕이 있는 집
 21 진짜 투명인간
 44 집으로 가는 길

 45 처음 자전거를 탄 날
 7 초코곰과 젤리곰

- 56 춘희는 아기란다
- 45 친해질 수 있을까?

- 45 카미와 야크
- 46 카펫 소년의 선물
- 46 콧수염 형제
- 79 투명한 아이

- 22 파란 아이 이안

- 79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 46 평화를 들려줄게
- 79 평화의 돌
- 80 평화의 소녀상
- 47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 80 하이퐁 세탁소
- 47 한부열의 선물
- 80 할아버지 손
- 81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 47 행복한 우산마을
- 48 형, 나를 지켜 줘
- 81 황금깃털



주제별로 찾아보기

■ ■ 관계의 소중함

- 23 2학년 6반 고길희 선생님
- 25 까마귀 소년
- 61 나는 슈갈이다
- 61 나는 태양
- 62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 27 나와 우리
- 64 내 친구 씨름 왕자
- 29 도둑맞은 이름
- 67 모르는 척
- 67 방과 후 운동장 교실
- 34 보이지 않는 아이
- 36 선생님은 몬스터!
- 37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 72 시간표 저편
- 39 양들은 지금 파업 중
- 40 얼음 땡!
- 77 유령 놀이
- 45 친해질 수 있을까?
- 81 황금깃털

■ ■ 관계의 소중함-가족

- 60 나,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 별
- 6 새로운 가족

■ ■ 교육받을 권리

- 26 나도 학교에 간다
- 42 우리는 학교에 가요

■ ■ 노동권

- 51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 69 빈 공장의 기타 소리
- 76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 81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 ■ 동물권리

- 65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 66 돼지 이야기
- 30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
- 10 서로를 보다
- 38 신발 신은 강아지

■ ■ 북한인권

- 57 개성빵
- 58 국경을 넘는 아이들
- 68 북한 아이들의 비밀 일기
- 36 새터민 이야기 -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 세대간의 이해

- 26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35 새 할머니

■ 아동성폭력

16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34 비밀

■ 아동인권

59 그곳에 한 아이가 있었다

63 나쁜 초콜릿

69 빨래 바구니, 꿈과 희망을 담아요!

38 신나게 자유롭게 뱅

46 카펫 소년의 선물

■ 인권의 이해

62 나도 권리가 있어!

67 딸 인권 선언

70 세계 어린이 인권 여행

71 스토의 인권 교실

73 아들 인권 선언

74 어린이를 위한 인권이야기

74 역사 속 인권 이야기

75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76 우리가 바꿀 수 있어!

42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10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77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54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78 인권 논쟁

55 인권아 학교 가자

46 콧수염 형제

■ 인권-인물

73 어린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75 오늘은 어린이날!

41 왕가리 마타이

■ 자신의 소중함

25 까만 아기 양

17 내 마음이 들리나요

30 돼지꿈

31 먹지 마! 곤충젤리

■ 차별·편견

25 그날 밤 이후 이영준

66 뒷간 지키는 아이

80 할아버지 손

■ 평화

57 강냉이

23 거짓말 같은 이야기

58 경극이 사라진 날

58 군함도 - 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59 군화가 간다

59 그 꿈들

60 김금이 우리 누나

60 꽃할머니

61 나는 빈 라덴이 아니에요

62 나무 도장

63 낡은 사진 속 이야기

27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64 내 이름은 말랄라

- 9 더 커다란 대포를
- 18 론도의 노래
- 33 무지개 욕심피물
- 69 불타는 옛 성 - 1938
- 53 빼때기
- 70 사쿠라
- 3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 37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
- 37 수요일의 눈물
- 72 시리아의 눈물, 꿈과 희망을 안아 주세요!
- 39 아킴 달리다
- 40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 40 엄마에게
- 75 오늘은 5월 18일
- 77 운동화 비행기
- 43 잘 자요, 대장
- 44 적
- 44 집으로 가는 길
- 56 춘희는 아기란다
- 79 평화를 기다리는 아이들
- 46 평화를 들려줄게
- 79 평화의 돌
- 80 평화의 소녀상

함께 사는 세상

- 14 6번길을 지켜라 똑딱
- 23 같이 놀자, 루이!
- 24 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 28 너는 어디로 가니
- 28 노각 씨네 옥상 꿀벌

- 64 노란 달이 뜰 거야
- 65 노숙인 인권학교
- 29 달려!
- 66 도서관 할아버지
- 30 뒷집 준범이
- 31 마지막 뉴스
- 32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 34 바보 야쿠프
- 5 배고픈 없는 세상
- 68 보이지 않는 이야기
- 35 빨간 볼 -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
- 52 빨간 자전거
- 35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 70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 71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어요!
- 71 소년, 떠나다
- 20 아무도 지나가지 마!
- 73 약속
- 42 우리집이 더 비싸거든
- 43 위를 봐요!
- 11 이상해
- 43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 78 주인공이 무어, 따로 있다
- 44 지붕이 있는 집
- 45 처음 자전거를 탄 날
- 47 행복한 우산마을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 8 깜장 병아리
- 15 나 좋은 점 가득

- 50 난 원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 27 내 동생 필립
- 8 넌 (안) 작아
- 65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 9 롤루
- 32 멋지다! 안벌 가족
- 32 목기린 씨, 타세요!
- 72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 41 우리 엄마는 외국인
- 78 조금 다르면 어때?
- 7 초코곰과 젤리곰
- 79 투명한 아이
- 22 파란 아이 이안
- 80 하이퐁 세탁소
- 48 형, 나를 지켜 줘

■ 함께 사는 세상-장애

- 57 건수 동생, 강건미
- 24 굴러라 슈퍼바퀴
- 26 깡이의 꽃밭
- 4 나무를 만져보세요
- 8 날개 잃은 천사
- 63 날아간 작은 새
- 28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 29 누나예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 31 롤라와 나
- 33 무지개
- 9 민수야 힘내!
- 33 바람은 보이지 않아

- 19 바람을 가르다
- 68 봄이 오면 가께
- 39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 10 어떤 느낌일까?
- 74 엘 데포
- 41 왜 내 동생이죠?
- 76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 21 진짜 투명인간
- 45 카미와 야크
- 47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 47 한부열의 선물

■ 환경

- 24 고래가 그물에 걸렸어요
- 38 시금치가 울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입법 · 사법 · 행정부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인권 관련 법 · 정책 · 제도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인권 분야의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인권전문도서관으로

- 인권정보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소장자료 검색과 위원회 간행물 원문정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영화 상영회,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각 인권사무소에는 인권도서관 분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 **02-2125-9681~3**

홈페이지 library.humanrights.go.kr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2018

펴낸날 2018년 6월
펴낸이 이성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글 바람숲그림책도서관 · 이연희
주소 (04551)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 인권도서관
전화 02-2125-9681~3
디자인 젊은기획 02-2264-2015
비매품

*이 목록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각 출판사의 협조로 도서 표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